

아키야마 다카시 포스터 미술관 나가오카

아키야마 다카시: 선명한 색채가 전하는 메시지

아키야마 다카시(1952~2022년)는 유머와 사회 비평이 어우러진 선명한 색채의 포스터로 유명한 그래픽 아티스트입니다. 나가오카 출신으로 청과점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마미술대학과 도쿄예술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후에 다마 미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의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유소년기에 나가오카 셋타야에 있는 기나 사프란주 양조장에서 본 회반죽 부조 그림(고테에, 鏝繪)에서 영향을 받아 모든 작품이 제한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키야마의 포스터 대부분은 현대 사회의 과제에 주목하고, 반전과 자연 보호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오카의 명소를 소재로 한 포스터도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국내 외에 걸쳐 활동하며, 국제적인 아트 디자인 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세계 각지의 포스터전에서 심사위원도 맡았습니다.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한국, 중국, 일본의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을 모은 대규모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고향의 구 은행 건물을 활용해 '아키야마 다카시 포스터 미술관 나가오카'를 개관하고, 전시회와 이벤트, 연구 활동을 통해 젊은 예술가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생전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술관을 나가오카시에 기증했습니다.

미술관



아키야마 다카시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미술관 내부는 높이 5m의 전시실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벽면 가득 포스터가 진열되어 있고, 중앙 테이블에는 예전 전시회에서 사용된 카탈로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내용에 따라서는 입체 작품을 포함하는 전시에 맞춰 레이아웃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관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과거 은행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으로, 두꺼운 금고실 문이 갤러리 공간과 작은 기프트숍, 카페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샵에서는 아키야마가 나가오카의 풍경과 동물들을 다채롭게 그린 엽서를 비롯해 책과 작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의 간단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은행 건물

본 미술관은 1925년에 지어진 구 나가오카 상업은행(훗날 다이시 호쿠에쓰 은행)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세기 초의 서양식 건축을 대표하는 것으로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철골 트러스 구조(부재를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만드는 공법) 지붕과 벽돌 모양의 타일로 마감한 외벽이 특징적입니다. 건물의 남쪽에는 2004년에 발생한 주에쓰 지진으로 깨진 두꺼운 유리창이 새로 교체된 창문 아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건물이 그 재해를 견뎌낸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 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오카 공습으로 인한 화재의 흔적이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은행 주위에는 목조 건축물이 많아서 불길은 셋타야 지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에 잘 타지 않는 은행 건물이 방화벽 역할을 하여 셋타야와 지역에 뿌리내린 수 세기에 걸친 전통 산업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켜졌다고 전해집니다.